

국외출장 계획서

결 재			
협 조			

구 분		내 역				
출장자 (Travelers)	소속 (Dep.)	대외협력과	성명 (Name)	문상원	직급 (Position)	과장
				전유주		행정원
출장지 (Destination)	국가 (Country)	중국		도시 (City)	대련	
사업명 (Project)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출장기간 (Period)	(미정) 2026년 8월 19일(수)~22(토) ※ PPSTI 총회 일자는 현재 논의 중인 일자로 기재					
출장목적 (Purpose of Travel)	1. 제28차 APEC PPSTI 총회 참석 ○ PPSTI 세부 안건 모니터링 및 APEC 센터 역할 및 관리에 대한 논의 진행 시 안건 검토 및 센터 의견 협의 ○ PPSTI Annual Fora Report 등 공식 문서에 APCC 활동 추가 협의 등					
	2. 센터 프로젝트 운영현황 공유 ○ 회원국 대상 APEC 센터 프로젝트 운영성과 발표 ※現 PPSTI 총회와 APEC기후심포지엄을 Back-to-Back으로 개최 협의 중 ○ 회원국에 2027년 프로젝트 지지 및 참가 독려					
기대효과 (Expectation Effect)	3. APEC 기후심포지엄 개최 관련 베트남 정부 협의 ○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2027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개최 관련 협의 ※2027 APEC Vietnam 프로토콜 내 심포지엄 개최 위한 협의 필요					
	○ PPSTI 총회 참석을 통해 APEC PPSTI 내 논의되고 있는 APEC 센터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논의를 모니터링하고 센터의 입장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등 센터의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의사결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센터의 활동을 PPSTI의 운영성과에 문서화하여 센터의 성과를 공식화 ○ PPSTI 회원국에 센터가 추진중인 프로젝트 현황, 결과 등을 공유하여 프로젝트의 인지도를 제고, 참여도 향상 ○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중국정부와 대면 협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심포지엄 운영					

출장일정 (Schedule)	일자 (Date)	방문일정(Schedule of Visit) (방문지역, 기관 및 담당자 등)			내 용(Activity)		비 고 (Note)
	8.17(월)	이동(1일)			부산→인천(또는 김포) →대련 이동		신청서 별도제출
	8.18(화)	APEC기후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엄 운영		신청서 별도제출
	8.19(수) ~21(금)	PPSTI 총회 참석(3일)			PPSTI 총회 참석		
	8.22(토)	이동(1일)			대련→인천(또는 김포) →부산 이동		
특이사항 (More Information)	※ 대외협력과 문상원 과장, 전유주 행정원은 PPSTI 총회 전(8.18(화)) APEC 기후심포지엄 개최하고, 총회 참석 예정 ※ 현재 일자는 논의 중인 일자로, <u>기간은 변경되지 않으나,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u>						
출장경비 예산 (Travel Expense)	출장자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기타	합계
	문상원	-	186,090	272,930	493,140	-	952,160
	전유주	-	186,090	272,930	493,140	-	952,160
국외출장 실적	출장자	금년도 국외출장 수행실적			최근 2년간 국외출장 실적		
		학회, 세미나	그 외	소계	학회, 세미나	그 외	소계
	문상원	-건	2건	2건	-건	2건	2건
	전유주	-건	1건	1건	-건	4건	4건

□ 문상원

▶ 2026년 국외출장

- 2026.1.31.~2.4. 제27차 APEC PPSTI 총회 참석 및 회원국 네트워킹 등(중국, 광저우)
- 2026.4.17.~4.24. PICASO Regional Training Workshop 개최 및 PICOF 참석
(피지, 난디)

▶ 2025년 국외출장

- 2024.12.2.~12.4. 2026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공동개최 협의(중국, 쑤저우)

▶ 2024년 국외출장

- 2024.2.26.~3.3. 제23차 PPSTI 총회 참석, 회원국 네트워킹(페루, 리마)

□ 전유주

▶ 2026년 국외출장

- 2026.1.31.~2.4. 제27차 APEC PPSTI 총회 참석 및 회원국 네트워킹 등(중국, 광저우)

▶ 2025년 국외출장

- 2025.4.5.~4.13. GCF-UNEP 태평양 5개 도서국 기후정보 지식서비스 강화사업
관련 프로젝트 운영위원회(PSC) 회의 참석(뉴질랜드, 오클랜드)
- 2025.11.25.~11.28. APEC Center for Technology Foresight(APEC CTF) 워크
숍 참석 및 발표(태국, 방콕)
- 2024.12.2.~12.4. 2026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공동개최 협의(중국, 쑤저우)

▶ 2024년 국외출장

- 2024.8.9.~8.22. 심포지엄 개최 사전점검 및 업무협의 및 2024년도 APEC 기후
심포지엄 개최(페루, 리마)

※ 출장기간 등 세부적인 출장 일정은 변동 가능

※ 학회, 세미나 등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은 개별적으로 심의신청서를 작성,
업무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은 대표 1인이 심의신청서를 작성

TRAVEL APPROVAL FORM

출장신청서

결재	행정원	과장	실장	원장직무대행
	07/23	07/24	07/27	07/28
	전유주	문상원	이종진	김형진
협조	행정원			
	07/23			
	강보라			

Name & Position of Traveler(s)	대외협력과장 문상원, 행정원 전유주		
Department	Research ☐ External ☒ Management ☐		
Destination	중국 대련		
Purpose of Travel	제28차 APEC PPSTI 총회 참석 및 발표		
Budget Request	Yes ☒ No ☐		
More Information (Expenses paid for by Organizer, Registration fee, etc.)	- 2026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8/17-19, 중국 대련) 개최 관련 출장 후 PPSTI 총회 참석 - APCC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려 했으나 좌석이 없어 마일리지 사용 불가		
Use Conference Expenses	Yes ☐ No ☒		
Submission of Travel Report	Yes ☒ No ☐		
Itinerary			
Date From	Date To	City/Country	Activity
8/19(수)	8/21(금)	대련/중국	PPSTI 총회 참석 및 발표
8/22(토)	8/22(토)	대련/중국	귀국

* **Note**
1. If it is to conferences, workshops or meetings, attach the agenda, invitation letter or proving document.
2. After completion of the business trip, the traveler should submit the travel report form within a week.

TRAVEL REPORT FORM

출장보고서

결 재	행정원	과장	실장	원장
	09/02 전유주	09/04 문상원	09/04 이종진	09/04 하경자
협 조				

I. Travel Overview 출장개요

1. Traveler(s) 출장자

Department 소속	Position 직위(직급)	Name 성명	Note 비고
대외협력과	행정원(행정원)	전유주	
대외협력과	과장	문상원	

2. Travel Period 출장기간

□ 2026.8.19(수) - 22(토)

3. Occasion and destination 행사 및 출장지

- 행사: 제28차 APEC PPSTI 총회
- 출장지: 중국 대련 대련국제컨벤션센터

II. Major Activities 주요업무 수행내용

1. Main Contents and Activities 주요내용 및 활동

- 제27차 PPSTI 총회 참석 및 발표
- ※ 세부내용은 불임파일 참조
- 2027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공동주최 관련 베트남기상청 관계자 회의

2. Relevance to APEC Climate Center’s Activities 결론 및 소감

- PPSTI 내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OIP)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포럼 내 논의되는 주요 미션은 1) AI기반 디지털 보건, 2)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두가지로 해당 미션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임

- PPSTI 의장단은 2027년도 프로젝트 세션부터 개정된 컨셉노트 요약본 양식을 도입하여, MOIP 프로젝트 트랙 또는 일반 프로젝트 트랙으로 병행 추진예정임. 두가지 트랙 간 프로젝트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위 두가지 미션에 중점을 둔 MOIP 기반 프로젝트를 우선순위화 할 예정이므로, 센터의 주요활동들과 PPSTI의 미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디지털 보건과 순환경제와 센터 주요활동 간 연계가 다소 어려워 보이나, 일반 프로젝트 트랙으로 추진 시 APEC 기금확보 가능성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3. Suggestions and Remarks 건의사항

III. References (Presented and Collected Materials) 주요 수집자료

(with attachment of any information or report in case of attendance of conferences, workshops and meetings) 학술대회, 워크숍, 회의 등 참석 시 관련 정보 및 문서 첨부

APEC 제28차 PPSTI 총회 출장보고서

【 2026. 9. 2.(수) / 대외협력과 】

- ✓ 2026년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¹⁾3) 기간 중 개최되는 제28차 PPSTI²⁾ 실무그룹 총회에 참석하여 APEC 센터의 주요활동 및 성과 발표
- ✓ 2026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성과 공유 및 2027년도 심포지엄 계획 발표
- ✓ PPSTI 자체 프로젝트 수행절차(컨셉노트 작성 및 MOIP 연계방안) 관련 점검
- ✓ PPSTI 2026-2035 전략계획에 대한 SCE 의견 검토
- ✓ 2026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베트남 공동개최 행사 운영계획 협의

□ 출장개요

○ 기간/장소 : 2026. 8. 19.(수) - 22.(토) / 중국 대련

※ 2026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8.18(화)) 개최 후, 제28차 PPSTI 총회 참석

○ 출 장 자 : 대외협력과장 문상원, 행정원 전유주 (총2인)

○ 출장개요 ※ PPSTI 총회 어젠다 별도첨부

일자	8.17(수)	8.18(목)	8.19(금)
회 의 명	제28차 PPSTI 총회		① 베트남 기상청 회의 ② APEC PMU 교육
참석대상	PPSTI 실무그룹 APEC 회원국 대표단		① APCC+베트남 기상청 1인 ② APEC 회원국
주요내용	제28차 PPSTI 총회 참석 및 발표		① 2027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공동개최 운영방안 협의 ② APEC 사무국 프로젝트관리유닛(PMU) 프로젝트 세미나 참석

1) SOM : 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관리회의, 산하 실무그룹 회의가 SOM기간 중 진행

2) PPSTI : Policy Partnership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혁신 정책파트너십(SOM 산하 실무그룹)

□ 주요내용

○ PPSTI 총회 참석 및 발표, 회원국 네트워킹

- APCC 2026년도 기후심포지엄 운영 결과 보고
- APCC 2027년 계획 발표(프로젝트 지지 요청 및 참석 홍보)
- MOIP(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ies,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기반 파일럿 프로젝트 관련 신규 프로젝트 컨셉노트 및 제안서 제출, 승인 방법, 절차 등 논의
- PPSTI 전략계획 및 승인기관 ToR 승인 경과 모니터링

○ 베트남 기상청(VNMHA) 업무협의

- 2027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공동개최 절차, 장소, 주제 논의

○ APEC 사무국 프로젝트관리부서(PMU) 주최 세미나 참석

- APEC 프로젝트 컨셉노트 및 제안서(Proposal) 작성 참고사항 및 질의 응답

□ 제28차 PPSTI 총회 주요내용

1. 주요의제별 논의사항

1-1. 푸트라자야비전 2040³⁾ 및 아오테아오라 행동계획⁴⁾ 이행

- 대만은 혁신 및 디지털화, 특히 기술 상용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AI 인재 양성을 통해 AI를 실용적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 AI 시범 생산라인을 통해 AI의 실용적 적용 사례를 공유함
- 미국은 디지털경제를 위한 AI기반 성장과 과학적 진실성(Integrity)을

3) 2020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20년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청사진이자 최상위 비전 -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건설한다.”

4) 2020년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2021년 APEC 정상회의(의장국 뉴질랜드)에서 승인된 세부 실행 로드맵 - ‘아오테아로아(Aotearoa)’는 마오리어로 뉴질랜드를 뜻하며, 회원국들이 향후 20년간 취해야 할 개별 행동과 공동 행동, 그리고 진척도 평가 체계를 구체화 했음

강조함.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AI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율적 합의 기반의 데이터 표준을 지지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협력과 APEC 포럼 간 공조 강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촉진을 독려함

- 중국은 푸트라자야 비전 이행과 녹색기술 및 신흥 혁신 분야에서의 과학기술혁신(STI) 협력 증진에 대한 의지를 다짐함

1-2. 2026 APEC 과학자 초청 프로그램 경과보고(한국 주도)

- 한국은 APEC 회원국 간 과학 연구 협력 및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2026 APEC 과학자 초청 프로그램’을 소개함. 이 사업은 APEC 회원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에서 최대 90일간 연구 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2026년 3분기 및 4분기 이행을 목표로 진행 중임. 한국은 PPSTI 회원국들 대상 참가모집 공고 예정임
- 페루는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과학적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자국 연구자들의 과거 한국 프로그램 참가 경험을 언급함
- 말레이시아는 연구자 이동, 역량강화 및 STI 협력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하고, 자격을 갖춘 연구자들의 참가를 독려하겠다고 밝힘
- 베트남 또한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며,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및 교류를 통해 대학과 그 외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가를 독려함
- ABAC⁵⁾ 자문관은 이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APEC 회원국 간 과학자의 이동성과 교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APEC 과학자 여행 카드 (APEC Scientist Travel Card)’ 구상을 장기 의제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한국은 현재로서는 APEC 과학자 여행 카드 구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함

5)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 APEC 내 공식 민간 자문기구

1-3. APEC 오픈사이언스 연합(APECOSA⁶⁾)

- 말레이시아가 주도하여 정책 및 거버넌스, 데이터관리 및 인프라, 역량 강화, 재정·인센티브 및 영향평가를 축으로 하는 ‘APEC 오픈사이언스 연합(APECOSA)’ 프레임워크(ToR 및 가이드라인 포함)를 발표
- 자율적이고 유연한 참여, 과학 지식 및 데이터의 책임있는 국경 간 공유, APEC 회원국 전반의 역량 강화를 강조함. PPSTI 및 SCE⁷⁾(경제기술협력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승인을 위해 SCE에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미국은 APECOSA를 PPSTI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평가하며 가이드라인을 승인함. ToR의 배경 설명 문서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종 승인 전에 수정본 회람을 요청함
- 칠레는 APECOSA를 위한 말레이시아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연구, 데이터, 지식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자국의 최근 노력을 강조함. 또한 역내 상호운용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함
- ABAC 자문관은 APECOSA를 의미있는 PPSTI 이니셔티브로 환영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이행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말레이시아는 미국의 ToR 수정의견이 반영되었으며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임을 확인함. 이행 방안으로, 정부 및 산업계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을 연결하고, PPSTI MOIP(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오픈사이언스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6) APEC Open Science Alliance - APEC 역내 회원국 간 오픈사이언스 정책, 데이터 인프라, 연구 거버넌스를 연계하기 위해 추진된 말레이시아 주도 이니셔티브

7) APEC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은 APEC의 고위관리회의 직속기구로 ‘경제기술협력 고위운 영위원회’를 뜻함. 특히 APEC의 경제기술협력 분야를 총괄, 조정, 감독하는 핵심 고위급 위원회임

1-4. ASPIRE 과학자상

- 미국 APEC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 NCAPEC) 재단이 후원하고 “산업 혁신과 경제 회복력 증진을 위한 AI 및 데이터 과학 연구 발전”을 주제로 하는 2026 ASPIRE⁸⁾ 상을 안내
- 생물의학 및 디지털 헬스 솔루션에 기여한 홍콩의 Ruibang Luo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 축하를 전하고 PPSTI 및 향후 의장국과의 협력을 통해 ASPIRE 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함

1-5. 임무지향적 혁신정책(MOIP) 파일럿 추진

- PPSTI 부의장은 MOIP 시범사업 경과를 발표하고,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APEC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역내 STI 네트워크 강화 차원의 “MOIP 미션 맵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 PPSTI 의장단이 제시한 MOIP의 미션은 두가지로 아래와 같음
 - 1) 2035년까지 APEC 지역 내 안전하고 환자중심의 국경 간 케어를 위한 AI기반 디지털 보건 도구 강화(*Advancing AI-Enabled Digital Health Tools for Secure, Patient-Centered Cross-Border Care in the APEC Region by 2035*)
 - 2) APEC 경제의 순환경제로의 전환(*Shifting APEC Economies Towards a Circular Economy*)
- PPSTI 내 3개 하위그룹(Sub-groups)에 해당하는 세부 미션과 측정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였음. 부의장은 PPSTI가 위의 미션 중 하나 또는 두 미션 모두의 이행을 검토하고, 영향을 측정할 모니터링 매커니즘을 개발하며, 향후 컨셉노트를 설정된 미션 우선순위에 맞출 것을 제안
- 또한, 타 실무그룹과의 교류 및 기존 APEC 사업 검토를 통해 공백을 파악하고 중복을 피할 것을 강조함. 8월 18일(화)에 PPSTI 의장단은 PPFS(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 의장과 면담하여 MOIP 미션에 대한 지지의사를 확인받았으며, PPSTI가 고려할 우선분야들을 제안받았음을 공유함

8) ASPIRE : APEC Science Prize for Innovation, Research and Education은 APEC 공식 과학기술상. PPSTI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음

- 중국은 MOIP를 실행하기 위한 PPSTI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협력 경로를 최적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MOIP 메커니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서브그룹 B의 리더로서, 후속 작업 이행을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함
- 페루는 AI 기반 디지털 보건 및 순환경제 모두 MOIP의 미션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지지하며, PPSTI 프로젝트의 영향력과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노력을 강조함
- 미국은 MOIP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며 순환경제 미션 추진을 승인함. AI 기반 디지털 보건 미션의 경우, 특히 민감한 보건 데이터 및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관련하여 APEC 보건실무그룹(HWG)과의 협의를 권고함. 또한 미션 중심 프로젝트와 함께 일반 프로젝트를 위한 유연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 대만은 AI 기반 디지털 보건과 순환경제 모두를 우선분야로 지지하며, STI 연계성, 기술 상용화 및 실용적 적용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학/시민 파트너십(PPPP) 접근방식을 강조함
- ABAC 자문관은 두 미션 모두 유의미하다고 인정하면서도 2035년이라는 목표 시한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함. 향후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에 이전 프로젝트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이 강조함
- 부의장은 두 미션 모두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고 디지털 보건 건에 대해 HWG와 추가 협의하는데 동의함. 기존 APEC 프로젝트와 타 실무그룹의 의견을 검토해 공백을 찾고 향후 MOIP 프로젝트의 초점을 좁히는 한편, MOIP 트랙과 일반 프로젝트 트랙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제안함
- 의장은 디지털 보건 분야의 HWG 추가 협의를 전제로 두 미션 모두 진행하는 것을 지지함. PPSTI가 2027년 프로젝트 세션부터 개정된 컨셉노트 요약 양식을 도입하여, MOIP 제안서의 경우, 두 미션 중 관련 미션을 명시하고 예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것임을 안내함. MOIP 프로젝트에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지만, 일반 프로젝트 트랙도 계속 유지될 예정

➔ (시사점) APCC의 프로젝트(APEC기후심포지엄)은 두 미션에 모두 부합하지 않아 MOIP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선순위에서 밀려 2035년까지 컨셉노트 단계에서 PPSTI의 최종 승인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순환경제와 연결하여 APCC의 핵심자산인 기후예측 데이터, 장기 기후전망, 리스크 평가 모델을 '순환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인프라'로 정의하여 자원순환과 기후 리스크를 연계하거나, 기후예측 기반 스마트 수자원 순환경제, 기후 재난으로부터 재생 에너지 순환 인프라 보호 및 수명 주기 관리 등의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는지 검토를 통해 PPSTI MOIP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할 필요 있음

1-6. PPSTI 서브그룹(Sub-group)⁹⁾ 회의

- MOIP 적용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3개 서브그룹의 보완적 활동을 하나로 묶어 공통의 목표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각 MOIP 세부 미션별로 컨셉노트를 통합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함
- 대만은 MOIP 프로젝트의 파급효과 및 성과지표를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부의장은 3개 서브그룹 프로젝트 간의 연계성 강화를 지지하고 장기적 파급효과를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개발을 강조함. MOIP 목표는 의미있고 측정가능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APEC 포럼과의 협의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더욱 구체화해야 함 강조
- 의장은 인도네시아의 통합적 접근방식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단일 통합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을 지적함. 규모가 작은 MOIP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여 향후 통합 프로젝트나 다년도 프로젝트를 고려할 것을 제안함. ➔ 2027년 프로젝트 세션부터 컨셉노트 요약에 MOIP 트랙인지, 일반 트랙인지 여부, 해당 미션, 예상 기여도 및 파급효과를 명시하도록 할 것이며, MOIP 제안서에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

9) PPSTI 내에는 3개의 Sub Group이 있음. 1) Sub-Group A: 역량구축(Building Science Capacity), 2) Sub-Group B: 혁신 환경 조성(Promoting an Enabling Environment for Innovation), 3) Sub-Group C: 지역협력 및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Enhancing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nnectivity)

- ABAC 자문관은 MOIP의 향후 확장은 두 파일럿 미션의 성공적인 이행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회원국들이 시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을 독려함
- APCC는 Sub-Group C 회의에서 2026년 APEC기후심포지엄에 대한 성과와 2027년 계획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함

1-7. PPSTI 게스트 기관 교류

-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는 첨단 기술과 혁신을 통해 열대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전을 진흥하는 활동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PPSTPI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함
- 환태평양대학협회(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y)는 고등교육에서의 AI, 디지털 보건, 재난위험감소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PPSTI와의 학술 및 연구 협력 강화 의지 표명
- 스웨덴 연구·고등교육 국제협력재단은 연구의 국제화, 동향분석, 책임 있는 국제화에 관한 과업을 소개하고, 증거 기반 정책 분석 및 STI 지식 교류를 통한 PPSTI와의 협력을 제안함

1-8. PPSTI 차기 부의장(2027-2028) 선출 건

- APEC 사무국은 2026년 9월부터 시작되는 2027-2028년도 PPSTI 차기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후보 추천을 장려함

1-9. PPSTI 10개년 전략계획(2026-2035)에 대한 SCE 의견 논의

- * (배경) PPSTI는 10개년 전략계획을 지난 27차 총회에서 승인하고 상위기구인 SCE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SCE의 수정 피드백을 수렴하여 해당사항을 PPSTI에서 재논의 함
- 의장은 PPSTI 10개년 전략계획은 2035년까지 PPSTI의 방향, 범위, 활동을 규정할 장기적 지침 문서임을 강조하며 SCE로부터 받은 의견이 PPSTI를 더 강하고 집중력있게 만들기 위한 의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의장은 수정안이 APEC 전체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하고 PPSTI의 유

의미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향후 과학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은 PPSTI의 상위 위원회인 SCE의 검토가 일반적인 APEC 승인 절차의 일부라고 설명함

- 미국은 10개년 전략계획의 현주소와 최근 SCE 차원에서 제공된 의견들을 확인함. SCE 수정 사항이 포함된 현재의 개정안을 지지하며, 이 계획이 2026 - 2035년 기간 동안 명확한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함. 다만, 미국이 현재 정권에서 반대하는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의 용어는 모두 '지속적(durable)'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길 요청함. 또한 전략계획이 PPSTI의 향후 활동 영역을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장의 견해에 동의하며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 접근방식을 지지함
- 러시아는 컨센서스 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며 적절한 문구 및 용어 조정에 열려 있음을 밝힘. 동시에 포용성(inclusivity)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개념이 삭제된 점에 의문을 제기¹⁰⁾하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는 등 기술 관련 영역이 축소된 것에 대해 확인설명을 요청함. 러시아는 전략계획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기존 형태의 계획안을 지지해 왔음을 언급하며, 남아있는 이견들이 잘 해결되어 10개년 전략계획이 최종 승인되고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는 PPSTI가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과학기술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함. 특히 현 세대의 활동이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략계획 내에 해당 개념을 유지할 것을 제안
- 페루는 이 전략계획이 산업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던 초기 형태에서 역내 성장 및 무역을 지원하는 혁신, 지식 이전, 연구 주제로 확대되어 온 PPSTI의 진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함. 과학기술을 횡단적(cross-cutting) 이슈로 보았으며, 전략계획이 PPSTI의 주요 지침, 목표,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2035년까지의 승인을 지지함

10) 현재 미국 정부에서 APEC 공식문건에서 포용성(inclusiv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개념 및 용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SCE의 미국 위원에 의해서 모두 삭제됨

- 호주는 전략계획의 장기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2035년 이전에 이를 재검토할 기회가 있는지 문의함. 이에 대해 의장은 중간점검(mid-term review)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답변함
 - ABAC 자문관은 기술 비의존적(technology-agnostic) 전략계획이라는 의장의 개념에 관심을 표하며, 특정 기술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제거하는 것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술적 우선순위가 변하더라도 문서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함
 - 대만은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용어가 대대적으로 삭제되고 '지속적인(durable)' 등 대안적 용어로 대체된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특히 일부 회원국에게 지속가능성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구 수정이 의미상의 실질적 차이나 PPSTI MOIP 전략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함
 - 부의장은 PPSTI가 제안된 수정안에 대해 SCE와 직접 논의하고 더 넓은 기술적 범위를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기회가 있는지 물음. 특히 역량 강화 활동을 주로 AI에만 집중하도록 축소하는 것은 PPSTI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이미 AI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APEC 포럼들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고 경고함. APEC 사무국은 APEC은 합의 도출과 협의를 통해 운영되므로 회원국들이 제안된 변경 사항에 우려가 있다면 PPSTI 차원에서 확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함. 따라서 PPSTI의 피드백은 관련 사무국 채널을 통해 SCE에 전달될 수 있음
 - 의장은 SCE의 의견과 회원국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전략계획을 추가 개정할 소규모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을 제안함. 연말까지 컨센서스를 도출하여 SCE의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함.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대만, 미국이 작업반 참여를 자원함
- ➔ (시사점) PPSTI의 10개년 전략계획(10-Year Strategic Plan)은 향후 10년간 PPSTI가 어떤 조직과 센터를 중심으로 아젠다를 이끌어갈지 규정함. 또한 전략 계획 내에 'APEC 센터와의 협력'이

PPSTI 성공요인으로 공식 명시되어 있어, APCC가 PPSTI 산하 공식 센터로서 APEC 프로세스 안에서 지속적인 제도적 보호와 지지를 받는 근거가 됨. 또한 APCC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전략계획의 신규 프로젝트 평가기준(Chapter 6)와 잘 연계되어야 함

1-10. PPSTI 대상 APEC 사무국 브리핑

- APEC 프로젝트관리유닛(PMU)은 2026년 APEC 사업기금 일정, 승인 트렌드, 장기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및 PPSTI 프로젝트 영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함
- PPSTPI 부의장은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지속성과 장기적 파급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 프로젝트 및 다년도 프로젝트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함. PMU는 한정된 자원과 신규 프로젝트 기회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함. 의장은 PPSTI가 경쟁이 덜한 재원을 포함하여 보다 전략적인 기금 확보 접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APEC 프로젝트의 평균 지원 금액이 프로젝트당 약 10~12만 달러 수준임을 언급함

1-11. 신규 추진 가능 PPSTI 사업

- 중국은 AI 인프라 최적화 측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있는 데이터 센터 성장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 지표, 기술 교류 및 정책 로드맵 사업을 제안함. 본 사업은 우수사례 모음집, 역내 기술 저장소, 역량 강화 워크숍, 정책 로드맵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됨
- 러시아는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 및 APEC 회원국 간 협력 잠재력에 초점을 맞춘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차원에서의 APEC 협력 전망 사업 구상을 발표함
- ABAC 자문관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존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기 전에 사업 범위를 신중히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시사점) 최근 PPSTI의 기류는 “AI·디지털 인프라 및 신기술” 분야로 무게중심이 강하게 쏠려있음. 이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과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의 3대 핵심축 중 하나인 '혁신과 디지털화'와의 연계성을 강조한 것으로, APEC 정상/각료급 지침에 가장 잘 부합하고 승인 받기 쉬운 'AI'와 '데이터 센터'를 핵심 테마로 잡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됨

1-12. 2027년 의장국 베트남의 공지사항

- 2027년 APEC 의장국은 베트남이며, SOM1(제1차 고위관리회의 일정)은 2027년 2월 나트랑, SOM3(제3차 고위관리회의 일정)은 8월 호치민에서 개최되므로 PPSTI 총회도 SOM1, SOM3 기간 중 개최 예정이라고 발표
- 베트남은 APEC 정상회의가 2027년 11에,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가 2027년 8월에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했으며, 2027년 PPSTI 주제 및 우선순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회원국들과 공유될 예정임
- ➔ (시사점) 제29차 PPSTI 총회는 2월 나트랑에서, 제30차 PPSTI 총회는 8월 호치민에서 개최되며, 현재 2027년 APEC 기후심포지엄은 10월경 개최하는 것으로 베트남기상청과 협의 중임. 심포지엄의 개최장소는 베트남기상청이 자국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예정. APCC는 제29차, 제30차 PPSTI 총회에 참석하여 APEC기후심포지엄에 대한 회원국 지지 및 참여를 독려하며 추진계획을 발표 예정

2. 경쟁력있는 오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PPSTI 세미나

- APEC 내 경쟁력 있는 오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해 주제 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진행됨
- 중국, 홍콩, 일본의 경험과 광범위한 APEC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오픈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량 분석, 실용적 접근법, 정책 조건들이 제시됨
- PPSTI 부의장은 경쟁력 있는 오픈 혁신 생태계 구축이 APEC 회원국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복력에 필수적임을 강조함
- 중국 Xue Lan 교수, PPSTI ABAC 자문관, 스웨덴 연구고등교육 국

제협력재단(STINT), 중국과기부 Yang Yun 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함. 세계 혁신 지형이 다극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오직 개방성과 더 깊은 협력만이 최첨단 기술 기술의 비약을 인류 공동의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발표함. 경쟁력 있는 오픈 혁신 생태계는 '전달 아키텍처(Delivery Architecture)'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단 하나의 생태계 청사진이란 존재하지 않음. 과학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쟁력 있는 오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임. APEC 회원국들은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역내 과학 데이터의 안전하고 규준을 준수하는 국경 간 이동 경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임

- ABAC 자문관은 APEC 내 경쟁력 있는 오픈 혁신 생태계 조성 제안을 강력히 지지했으나, 회원국 간 특성을 지닌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주의를 당부함. 어떠한 시스템이든 "가능한 한 개방적 이되, 필요한 만큼 안전해야 한다(as open as possible, and as secure as necessary)"고 제안함. 기존의 견고한 혁신 생태계를 갖춘 다수의 테크노파크, 혁신 지구, 캠퍼스 및 리빙랩을 연계하여 'APEC 오픈 혁신 테스트베드 파이오니어(Path finder)'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 APEC 오픈 혁신 생태계 우수사례로 PPSTI 프레임워크 하에 중국이 주도한 실용적 디지털 도구가 소개됨. 이 플랫폼은 성공 사례의 자발적 공유를 지원하고 역내의 보다 체계적이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중국, 대한민국, 페루, 태국, 멕시코 패널들이 공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자율적 성격, 상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발전 단계의 회원국 구성, 유연한 정책 다이얼로그 및 시범 사업에의 적합성 등 APEC의 실질적 장점에 대해 논의함
- Chen Dongmin(베이징대 중국신흥산업혁신연구센터 공동소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확대되는 혁신 격차를 강조하고, 연구와 상용화 사이의 갭인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메우기 위한 지식 확산, 기술 이전, 공공 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권소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은 APEC의 자발적 구조에는 신뢰와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이 성공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 직면했던 난제,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까지 공유할 것을 권고함
- Rocio Cathia Casildo Canedo(페루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는 조율된 혁신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 아카데미아, 산업계를 연결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통합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연구와 기술을 실질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페루의 사례를 공유함
- Christian Linares Jirapan(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정책위원회 정책 전문가)는 산학 협력, 지역 테크노파크, 활발한 연결기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상용화 및 지역 간 혁신 격차를 해소하려는 태국의 노력을 발표하는 한편, APEC 플랫폼이 실질적 도입과 측정가능한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함
- Alfonso Antonio Araujo Gonzalez(멕시코 테크놀로지코 데 몬테레이 중국혁신센터)는 복잡한 국제 혁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인재 양성과 국경 간 이동성 필수적 강조

3. APEC PPSTI 센터 활동

- APEC PPSTI 센터 발표 *APCC는 '26년 2월에 발표 의무 이행 완료
 - APEC 과학영재 멘토링 센터(AMGS)는 기존 청소년에서 신진 연구자를 위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발표하며, APEC 회원국 전반에 걸친 STEM 연구 협력, 멘토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강조함
 - APEC 기술이전센터(APCTT)는 기술 상용화, 역량 강화, 정책적 파급효과 및 역내 협력 분야에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APEC 센터 간 협력을 강조함
 - APEC 바이오수소기술 연구센터(APEC ACABT): 신진 연구자 및 기업가 교육, 역량 강화, APEC 회원국 간 역내 파트너십을 포함한 바이오수소 및 바이오경제 분야 활동을 발표함

-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는 센터 간 정보 공유, 역량 강화 및 공동 사업 이행을 강화한 주요 선언과 이니셔티브를 하이라이트 하며 APEC 센터 간 협력 경과를 발표함. 또한, APCTP, AMGS, APEC CTF, APEC-ACABT는 PPSTI 우선순위 및 MOIP에 발맞추어 역량 강화, 지식 교류, 공동 활동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함
- ABAC 자문관은 센터들의 기여를 환영하며, 더 큰 시너지와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PPSTI와 APEC 센터 간의 정기적인 다이얼로그 및 교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함

4. 베트남 기상청과 업무협약

○ 참석자

- (베트남 기상청) 국제협력부국장 Quang Nguyen
- (APCC) 문상원 과장, 전유주 행정원

○ 주요내용

- (절차) 베트남기상청은 2027년도 APEC 기후심포지엄 공동주최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 중. APEC 기후심포지엄의 공동개최를 위한 공식서한을 APCC로 송부 예정
- (시기/장소) 심포지엄 개최시기 및 장소에 대해 베트남기상청은 2027년 10월경 푸꾸옥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추후 확정 예정
 - ※ 베트남기상청은 APEC의 모든 회의가(SOM1~3,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푸꾸옥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어, 심포지엄 개최지 또한 푸꾸옥이 될 것이라 언급.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SOM1은 나트랑, SOM3는 호치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으며,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만 푸꾸옥에서 개최될 예정임. 따라서 베트남기상청이 수정된 정보를 받으면 심포지엄의 개최지를 수정하여 제안할 가능성 있음
- (심포지엄 주요내용) 현재 APCC는 2027년 심포지엄 주제를 “APEC 지역의 수자원 관리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계절예측의 최적화 및

활용(APEC Climate Symposium 2027 - Optimizing Seasonal Prediction for Water and Energy Security in APEC Region”으로 기획하여 컨셉노트를 제출하고(‘26.6.16), 1차 승인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베트남기상청은 항공 기상서비스를 위한 기상·기후정보 활용 및 영향예보(Impact-based Forecast) 분야가 관심주제라 언급

➔ (향후계획) 2027년 사업에 대한 컨셉노트 1차 원칙승인(예정일: 9월 18일) 결과 통과하면, 사업제안서 단계에서 베트남기상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획안 제출 예정

5. APEC Project Management Unit(PMU) 기금 신청 관련 교육

○ 주요내용

- 컨셉노트의 성공적인 승인을 위해서 프로젝트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과거 프로젝트 검색 기능 활용)
- 컨셉노트와 사업제안서의 항목별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필요
- 산출물(Output)에 대한 회원국별 의견이 다르므로 다양한 산출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민 필요
-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의 용어 수정 피드백이 굉장히 증가하였으며, 해당 국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컨셉노트를 승인해주지 않으므로(APEC은 만장일치제), 피드백을 주는 국가와 잘 소통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할 필요 있음
- 최근 미성년자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APEC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에 명시됨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할 경우 APEC 공식 프로젝트로 추진 불가함

○ 주요현안

- 최근 APEC사무국에 사이버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프로젝트 신청을 위해 운영중인 APAS 시스템이 가동 중단됨. 이 사고로 인해 현재 프로젝트 세션 2 평가기간이 연기되었음
- APAS 시스템은 보안사고 이후 운영 환경 재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 24일 목표로 운영 재개 계획 중(현재 정상가동 중)

일자	주요내용
8.12(수)	APAS에서 채점(Scoring) 템플릿 생성
9.04(금)	회원국 평가 채점 마감일 - APAS에서 회원국이 컨셉노트 적격성 평가
9.17(목)	BMC(Budget Management Council, 예산관리위원회)에서 컨셉노트에 대한 원칙적 승인
9.18(금)	프로젝트 책임자(PO)에 원칙적 승인 결과 통보
10.08(목)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마감일 -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여 APAS에 제출 - 사무국에서 검토
10.15(목)	프로젝트 제안서 최종 마감일(유예 기간 종료) - 수정된 프로젝트 제안서 APAS에 최종 등록
'26.11-'27.03	1차 결과 발표(40개 프로젝트 제안서 대상)
'27.03-'27.06	2차 결과 발표(잔여 프로젝트 제안서 대상)

➔ (향후계획) 현재 APCC가 제출한 2027년 APEC기후심포지엄에 대한 컨셉노트의 원칙적 승인 결과를 대기 중이며, 9월 18일(금)에 통보될 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예정